

# 광주 남구 평화통일축제… “분단 넘어 하나로”

통일 체험 부스 시민 호응  
VR·전통놀이 체험 풍성해  
세대 넘은 평화 염원 가득  
“평화적 통일 꼭 이뤄졌으면”

“지금은 분단돼 있지만 같은 역사를 가졌잖아요. 결국은 하나가 될수 밖에 없는 운명이죠.”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열린 평화통일축제에 500여명의 광주 시민들이 모여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염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와 교류 복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평화통일축제가 지난 28일 광주 남구 주월동 푸른길 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정부가 주최하는 것도 아닌 지방의 작은 자치구가 통일 축제를 열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끌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오전 남구 주월동 푸른길 공원 일대.

이른 시간임에도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다.

축제에서는 통일 VR 체험, 평화보드게임, 통일 버킷리스트, 남북한 전통놀이 등 다양한 부스들이 운영됐으며, 시민들은 부스 체험을 하면 도장을 찍어주는 스탬



28일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열린 평화통일 축제. 시민들이 다양한 부스에 참여해 축제를 즐기고 있다.

프 종이와 한반도 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여러 부스를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오갔다.

부채 만들기과바람개비 만들기 부스는 본인의 통일 소망을 적는 시민들로 가득했고, 게임 부스에는 같은 뜻을 가진 남한 언어와 북한 언어를 잇는 게임을 하는 등 색다른 경험을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였

다. 또 VR체험에서는 정부 수립, 한국전쟁, 분단, 통일한국의 모습을 보며 즐기는 시민들과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 거리 등을 담은 사진전을 신비롭게 바라보는 어린이들도 눈에 띄었다.

한 칸에는 북한민 공연, 새날 몸짓, 통일 줄넘기 등의 공연도 열려 축제 장소는 그야말로 시끌벅적 했다.

남구에 거주하는 이형로(80)씨는 “지금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같은 역사,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다”며 “그동안 남북 교류 관계가 좀 약해졌었는데, 다시금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전했다.

이금순(67)씨도 “전통놀이와 북한 먹

거리 음식을 체험해 보니 참 비슷한 점들이 많다고 다시금 느낀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평화롭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이상민(24)씨는 “북한과 굳이 통일을 해야하나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부스에 참여해 보니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됐다”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아들과 함께 온 조민주(45)씨는 “우리가 세계에서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것도 알고 그간 남북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싶어 축제에 방문했다”면서 “학교에서 글로만 배우는 것보다 이런 부스들에 참여해 보면 북한의 관계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2부로 나눠 펼쳐진 축제는 1부에서 백운광장 세월호 추모 광장 앞에서 빅스포 광장까지 통일 올레길 행진이 진행됐으며 2부는 푸른길 공원 일원에서 통일교육 체험 부스가 진행됐다.

남구 관계자는 “남북 관계에도 새 국면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광주에서 보내는 통일 염원이 북측으로 전달돼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서둘러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 보성·밀양 흉악범 사형수 2명 옥중 사망

광주교도소서 고령 투병 끝  
국내 사형수 57명으로 줄어

흉악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장기미집행 사형수 2명이 지난해 옥중에서 잇따라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보성 어부 연쇄살인’의 오종근과 ‘밀양 단란주점 살인’의 강영성이 지난해 광주교도소에서 생을 마쳤다. 두 사람은 각각 고령과 지병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근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라남도 보성에서 배를 타고 여행 온 남녀 4명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 범행 동기는 성적 욕구 충족이었으며, 범죄 수법의 잔혹성과 계획성이 드러나 2010년 사형이 확정됐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86세로, 국내 최고령 사형수였다. 그는 생전에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영성은 1996년 경남 밀양시의 한 단란주점에서 조직원 2명을 살해하고 경찰관을 포함한 7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의 주범이다. 1996년 사형이 확정됐고,

이후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해왔다. 그는 지난해 58세로, 뇌출혈 등 지병으로 투병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오종근은 지난해 7월께, 강영성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죽음으로 국내에 남은 사형 확정자는 57명으로 줄었다. 이 중 4명은 군형법 위반으로 사형이 선고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흉악범죄가 반복될 때마다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023년에도 법무부가 전국 교정기관에 사형장이 제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형수 장기 수용이 인권 문제와 함께 교정당국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정기관 관계자는 “수형 생활이 수십 년씩 길어지면서 고령 수용자가 늘고, 치료·관리 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사형제의 존폐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 광주·전남 제조업 현장서 잇단 끼임 사고… 2명 부상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오선동 하남산단의 한 알루미늄 제품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확장기 설비에 오른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26분께 전남 장성군 동화면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 B씨가 기계에 왼손이 끼었다.

B씨 역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승우 기자**

## 음주 후 시내버스 추돌·아내 살해한 남성 투신

### 주말 사건사고 종합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버스에 참변  
여수업체 노동자 1명 사망·1명 뇌사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광주·전남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시내버스에 치인 70대 여성이 숨지고 벽돌을 이용해 상대방 차량의 뒷유리를 부순 6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순천시에는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투신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주말간 지역의 사건사고를 정리해본다.

●교통사고·온열질환·차량훼손 이어져  
광주광역시 남부경찰은 지난 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한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당시 버스에도 20여명이 타고 있었으나 병원에는 이송되지 않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 사고는 광주 곳곳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7시55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자 B(60)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7)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3분의 2 지점에 이르렀고, 빨간불로 바뀐 직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시내버스는 직진과 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 운전자의 차량을 벽돌로 파손한 사고도 발생했다.

D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30분께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시멘트 벽돌을 이용해 20대 남성 E씨의 차량 뒷유리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북부경찰 조사 결과 D씨는 운전 도중 E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D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를 조사 중이다.

또한 식품가공업체 정화조에서 질식사 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수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시25분께 여수시 만흥동의 식품가공업체 정화조에서 60대 남성 F씨와 50대 남성 G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F씨는 숨졌고, G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부터 정화조 청소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아내 살해한 남성 투신 사망  
순천에서는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10분께 전남 순천시 소재 아파트 11층 집 안에서 40대 남성 H씨가 아내인 30대 여성 I씨를 흉기로 찔렀다. 범행 직후 H씨는 스스로 밖으로 뛰어내렸다.

어머니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10대 자녀가 구조 당국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두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유철·정승우·이정준 기자**

## 묘지 함부로 파헤쳐 유골 옮긴 80대 토지 관리인 ‘징역형’

###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 훼손”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기소된 토지 관리인 A(8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에 위치한 중종의 토지에서 B

씨의 고조부·고조모가 묻힌 분묘 2기를 무단으로 발굴해, 약 50m 떨어진 곳에 유골을 다시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토지는 A씨가 1981년부터 자신이 속한 중종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해오던 곳으로, 중종과 토지계약을 맺은 매수자와 중개인으로부터 ‘분묘를 정리하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

안을 받고 굴삭기를 동원해 분묘를 파헤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묘의 평온과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이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